

제주해녀 대한민국 무형문화대전 오른다 13일 전주 국립무형유산원 대공연장서 공연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으로 등재된 제주 해녀들이 국내 최대 규모의 무형문화제 축제인 '2019 대한민국 무형문화제대전' 무대에 오른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오는 13일 전주 소재 국립무형유산원 일주마루 대공연장에서 제주해녀들의 삶과 물질을 대평해녀 공연팀과 제주무용예술원의 노래와 춤으로 표현한 '어명의 숨비소리가 고스란히 울림으로 다가오는 난드르 해녀의 노래 '이어도사나'가 진행된다고 9일 밝혔다.

이날 무대에서는 제주해녀를 소개하는 홍보 영상을 시작으로 대평어촌계 공연팀이 제주도 무형문화제 제1호 해녀노래와 제10호 멸치추리는 노래를 비롯해 허벅장단에 맞춰 오돌또기, 느영나영 제주민요를 선보인다. 제주무용예술원의 제주 해녀춤, 제주 물허벅춤 공연도 펼쳐진다.



펼쳐진다.

도 관계자는 "이번 공연을 통해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으로 등재된 해녀문화의 홍보뿐만 아니라 순수 해녀들로 구성된 공연팀이 무형문화제대전이라는 큰 무대에서 공연해 자부심을 가지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대한민국 무형문화제대전'은 전통공연, 전시, 시연, 체험 등 무형문화제의 모든 것을 한자리에서 즐길 수 있는 국내 최대 규모의 무형문화제 종합축제다.

10월 농촌융복합산업인 강주남 대표

농림축산식품부는 10월 농촌융복합산업인으로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제주민속식품, 사월의 핑'(이하 사월의 핑)의 강주남(사진) 대표를 선정했다고 9일 밝혔다.

강주남 대표는 건강식품으로 사랑받는 제주 민속식품인 핑을 옛으로 가공해 대중화했으며, 2014년에는 전통음식과 문화보존 프로젝트인 국제슬로푸드 '맛의 방주'에도 선정됐다.

강 대표는 핑에 홍삼·백도라지 등을 첨가한 옛·조청 등 다양한 제품을 개발해왔으며 2017년에는 식품안전경영시스템 인증을 획득했다.



또한 강 대표는 생산제품이 지역사회와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유통채널 다양화, 지역농가 소득 창출 확대에 중점을 두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아울러 교육농장, 핑 사육장 등 견학 프로그램을 운영해 도내 학생들에게 현장 학습장을 제공해 학습 지원 활동에도 적극 나서고 있다.

나서고 있다.

한편 강 대표는 최근 농촌진흥청과 지자체가 육성한 품질인증 농촌교육농장을 대상으로 실시한 창의적 체험활동 및 우수 교육프로그램 발굴을 위한 경진대회에서 장려상을 받았다.

김원호 회장 이웃돕기 성금·물품 기탁

김원호 용담1동 새마을지도자협의회장은 지난 8일 용담지역아동센터에서 도내 어려운 이웃을 돕는데 사용해 달라며 성금 50만원과 쌀 10kg 5포, 라면 5박스를 제주사회복지공동모금회(회장 김남식)에 기탁했다. 이날 기탁된 성금은 용담1동에 거주하는 저소득가구에 생계비·의료비로 지원될 예정이며, 물품은 용담지역아동센터에 전달됐다.



알림

출산장려 캠페인

아기의 탄생, 세상의 행복

한라일보가 저출산 고령화시대를 맞아 아기의 탄생을 축하하고 아이가 행복한 세상을 만들어 나가기 위해 '출산축하 코너'를 선보입니다.

제주에 거주하면서 12개월 미만의 아기를 둔 부모나 조부모는 아기(가족)사진과 소정 양식에 내용을 적어 보내 주시면 누구든 게재 가능합니다. 생명의 탄생을 축하하고, 세상의 행복을 가져다 줄 출산가정 모두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한라일보 홈페이지 출산캠페인 배너에서 소정양식을 내려받아 이메일(baby@ihalla.com)로 보내 주시면 됩니다. (문의사항은 편집부 ☎750-2251)

이메일 접수가 험드신 분을 위해 전화 접수도 받습니다.

제주시노인회 민속경기대회 개최



(사)대한노인회 제주시지회(회장 김태홍)는 지난 8일 제주 애향운동장에서 24개 읍·면·동 분회 회원 3000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제23회 노인의 날 기념식 및 제34회 제주시 노인 민속경기대회'를 개최했다.

구좌 무용단 한-몽 친선 문화축제 출연



구좌 아름다운 무용단(단장 이금자)은 최근 몽골에서 개최된 '한-몽 친선 문화축제'에 출연해 구좌읍의 문화와 예술을 선보이며 공연을 펼쳤다.

제주시여성단체협의회 노인의 날 급수 봉사



제주시여성단체협의회(회장 김영생)는 지난 8일 제23회 노인의 날 기념식장에서 급수 봉사활동을 전개했다.

건입동 어려운 이웃에 밀반찬 전달



건입동주민센터(동장 김현숙)와 건입동직접자봉사회(회장 윤봉실)는 지난 8일 지역내 어려운 이웃 25가구를 선정해 식재료와 밀반찬 등을 전달하는 지원사업을 전개했다.

등정

제주4·3희생자 유족 청년포럼 참석

◇정민구 제주특별자치도의회 4·3특위위원장 12일 제주시청 정문에서 열리는 '제1회 제주4·3희생자 유족 청년 포럼 및 청년대회'에 참석할 예정.

일도1동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 참여

◇김장영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교육의원 10일 제주시 일도1동에서 열리는 '일도1동 새마을부녀회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에 참여할 예정.

와흘리 풍수해보험 가입 홍보

◇김덕홍 조천읍장 지난 8일 제주시 조천읍 와흘리 마을회관을 방문해 자연재해로부터 입은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는 풍수해보험 가입에 대해 적극 홍보.

'4·3희생자, 배제와 포용' 학술대회 개최

제주4·3 71주년을 맞아 사단법인 제주4·3연구소(이사장 이규배(사진), 소장 허영선)가 이달 11일 오후 2시 제주시 아스타호텔에서 '4·3희생자, 배제와 포용'을 주제로 학술대회를 연다.

이번 학술대회는 4·3희생자로 인정을 받지 못한 배제된 사람들을 본격 조명하고, 그들을 어떻게 포용해야 할 것인지 논의하는 자리다. 1부는 '4·3희생자의 배제와 포용'을 주제로 '희생자 인정에서 위계(位階)'(이재승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승전의 그늘-베트남전 기념화'(심주형 인천대 중국학술원), '재일 제주인 재론(再論)-분단과 배제의 논리를 넘어'(문경수 일본 리츠메이칸대학) 주제 발표에 이어 고용 변호사, 심아정 독립연구활동가, 허호준 한겨레신문 선임기자가 토론을 벌인다. 2부에서는 '4·3희생자 배제자 유족과 함께'를 주제로 관련 유족들의 이야기를 듣는다. 문의 064)756-4325.

광동도남오거리식당 희망나눔 명패달기



제주시 화북1동에 위치한 광동도남오거리식당(대표 이창국)은 지난 8일 대한적십자사제주특별자치도지사(회장 오홍식)에서 실시하는 적십자 희망나눔 명패달기 운동에 이어도 봉사회의 홍보 캠페인을 통해 동참했다.

신선한 초밥이랑 활어회!

황금어가

□ 인사의 말씀

신성한 활어회와 저렴한 코스요리로 최고의 맛과 품질을 자랑하는 황금어가입니다. 제주의 제철 농산물 재료를 신선한 고품질의 맛을 담아 고객 한 분 한 분 가족처럼 모시고 편안한 분위기로 회의, 세미나, 돌잔치등 다양한 단체 모임에도 안심맞춥니다. 황금어가는 처음과 같은 맛과 정성, 친절함으로 최선을 다해 모시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황금신·이정 열 배상

1! 종합경시장

제주시 보건소	시민복지타운광장	정부제주지방합동청사
KBS	농협	황금어가

연복로: 11

• 예약접수 받고 있습니다.

주소 : 제주시 복지로 5길 11(도남동 763-1) 도남정부청사 정문 남측

점심특선

지리	10,000~
삼계탕	10,000~
초밥	10,000~

저녁

황금코스	35,000(1인당)
어코스	30,000(1인당)
가코스	25,000(1인당)

직원구함

- 주방실장 ○명
- 주방보조 ○명
- 홀 써빙 ○명

단체석 10~80인석 전용주차장 확보

☎ 064)753-8253